

제12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25:1-27:1

24장에서 예루살렘 내 주둔하고 있는 앓수르군의 병영이 쫓겨나게 될 것을 묵시로 예언한 이사야는 25장-26장에서는 찬송시의 형식을 빌어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만국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 시온성으로 재건하실 것을 계시한다. 이처럼 인간의 도성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앓수르군이 예루살렘에 지은 모든 도성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채우시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하신다.

25장-26장의 찬송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 | |
|------------|----------------------|
| 25장 1절-5절 | 시온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
| 25장 6절-8절 | 이사야의 하나님 나라 선포 |
| 25장 9절-12절 | 유다 백성들의 찬양 |
| 26장 1절-9절 | 이사야의 화답 |
| 10절-11절 | 이사야의 악인에 대한 경고 |
| 12절-15절 | 감사의 기도 |
| 16절-27장 1절 | 이사야의 회고 |

①. 25장 1-5절을 읽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1절의 “오래 전부터 세우신 계획”은 주전705년 히스기야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앗수르 봉기를 말하며, 2절의 “외인의 궁성”은 예루살렘 내 앗수르군이 지은 성을 말하고, 3절의 “강한 민족”은 반앗수르 봉기에 참여한 용감한 민족들을 말한다.

②.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는 앗수르에 지배 아래에서 굴욕적 삶을 살고 있지만 유다의 미래에 약속된 5가지 희망을 선포한다.

6절-8절을 읽고 이사야가 앗수르의 지배를 받은 암울한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5가지 희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 ① 하나님의 잔치(6절)
- ② 하나님과의 막힌 벽을 제거하심(7절)
- ③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심(8절)
- ④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심(8절)
- ⑤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하심(8절)

③.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주신다는 말씀에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인간이 되려면 수치심을 견디며 별거벗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수치심을 감수하고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직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은 견디기 힘든 가혹한 고통이다. 어떤 이들은 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 그 수치를 가리며 그 수치를 가리는 무엇을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 위해 때로 심판을 통해 강제로 그들의 옷을 벗기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인간은 스스로 수치심에 빠지며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며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어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 지 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시고자 별거벗겨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잠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④.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온다. (25:9-12) 이에 성전 지도자는 성전문지기에게 예루살렘성으로 몰려오는 유다백성들을 향해 성전의 문을 활짝 열라고 명령한다.(26:1-2)

이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성전을 향해 몰려오는 유다백성들을 향해 세 가지 축도로 그들을 축복한다.

26장 3절-7절을 읽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성전으로 몰려오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축도를 묵상해보자.

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라.(3절)

② 주를 영원히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실 것이다.(4절)

③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5-7절)

⑤. 유다백성을 의로운 나라로 부르며 축복하던 이사야는 10절 이하에서 갑자기 유다백성 중 일부를 악인으로 규정하며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사야가 악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있던 유다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을 말한다.

26장 10절-11절을 읽고 이사야가 악인을 향해 선포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인해보자.

6. 이사야는 26장 12절-15절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26장 16절-27장 1절에서 앗수르의 속박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험난했던 여정을 회고하며 찬송시를 마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모’라는 단어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앗수르나 세상을 동시에 의지하는 이중적 신앙을 보여왔다. 그러나 앗수르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유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양모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양모하는 자에게 새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를 역사 속에서 입증하고 계시는데도 유다는 이후로도 여호와를 양모하는 신앙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이사야40장 29절-31절을 읽고 여호와를 양모하는 신앙의 어려움에 대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